

知敦寧公派譜序

삼가생각컨대先祖知敦寧府事公後裔는 退憂公遭難以後門
運의一時沈滯로 子孫이各自離散하여 公의墓所守護와歲
祀奉享에 未給함이 있었고 配位黃氏奉享은 大寺洞門中
에一任하여온 狀態였음을 다같이悚懼하여기어懷恨을不
禁하던바이다

公의後裔는 長子退憂公 次子延安公 三子金堤公의三分派
를形成하여 間或各其 派譜를發行한例는있으며知敦寧公
을모시는 一個團員으로서의 知敦寧公派譜를刊行하제된
것은 今般이 史上的最初이며 實로 吾宗의 再整備이며 再
團合을 뜻하는 것으로 一步前進이요 一大維新인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國土分斷의 悲劇으로 北韓地域의諸族이
參加치 못하였음은 極히恨스러운 일이나 南韓居住의 後
孫만이라도 熱誠的인 呼應으로始役一年未滿에完竣을보
게된것은 尊靈의 默祐아래 將來의 繁榮을約束하는象
徵이어서 慶賀와 欣喜에가슴벅찰뿐이다 이와같은 莫重
大事에 외람되이 宗孫이란 名目으로 任務의一角이나마

도 負荷치 못하게 됨을 자못 부끄럽게 生覺하면서 譜務
에 心力을 傾注하는 任員諸位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며
特히 今般의 譜役이 짧은 時日에 有終의 美를 건우게 되었
음은 炳斗昌主 麟主 鍾烈 諸族 氏의 功勞가 致大하였음을 添
言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나아가서 本譜刊行을 楔機로 三派가 一致團和하여 知敦寧
公兩位 墓所守護와 香火奉享에 劃期的인 進展이 있어서 名
實相符하는 忠孝世家의 裔孫으로 시의 榮譽와 矜持를 後
代에 繼承토록 함과 同時에 相扶相助하는 敦睦의 美德을
심어서 後孫들의 無窮한 發展과 繁榮을 期하도록 하기
를 冀望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新羅紀元二千三十一年甲寅至月下瀚

知敦寧公十三代嗣孫 鍾萬 謹識

國有史 家有乘은 오죽韓國만이 繼承되어오는 美風良俗中
世界萬邦에 자랑할수있는 事實입니다 特히 吾朴은 天
賜한 土姓中 新羅王孫으로 萬派一源이며 繼承 昭
明함니다 現代南韓人口三千萬中四百萬姓孫들이 各界

各層에서赫々한 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李朝에서道德文學으로 빛나신 文景公駱村中祖의偉蹟은 더욱世上이다아는事實이며長子文莊公諱啓賢과長孫知敦寧公諱安世로서三代에亘한燦爛한業績은派門中最全盛期라할것입니다近世에 우리韓國은 兩斷된國土에서離散生活을 營爲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所謂西歐의科學爲主로無秩序한 潮流가風靡함에綱倫은 解弛해지고道德은退敗되어가고있습니다 諸事로近親을찾아 같이先塋을 守護하고子孫들의 崇祖思想을 涵養식히는것도 時代를좀먹는頽廢風潮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줄로 알고있습니다 今番知敦寧公派譜刊行에있어 모든 難関을 克服하고 當年成就함에 任員諸位게 贊賀를 드리며 不文으로 頭緒없이 敢히 기록합니다

歲甲寅 至月下翰

延安公十一代孫

憲教

謹識

譜者何爲而作也 오 본爲一祖 一如水之一原과 木之一根과야 一原之水가 分爲千派萬流하고 一根之木이 分爲千枝萬

葉 하나니 非譜면何以辨其派流枝葉乎아 孝先睦族이 即是類故로 吾東의 名門華族이 莫不修譜者一良以此也라

惟我朴氏의 譜牒은 實自義谷公諱鼎賢而始하니 即禮經에 所謂諸侯有別하야 子有封爵하야 爲始祖也라 自是로 厥後 冠冕이 相襲하고 雲仍이 繁昌하야 固自有譜冊의 前後修述而 嗚呼라 我朴이 遠自麗季로 至李朝中 葉하야 簪纓이 相承하야 名震東土로 대 但以退憂公의 遭難으로 諸宗이 如經霜雪하야 枯萎隱遁하야 因致不振하니 惜乎라 未知其禍인지 知敦寧公配位貞敬夫人昌原黃氏의 塋域이 陵夷하고 儀物도 多闕하야 子孫의 瞻謁者가 未嘗不悚惕하니 幸於二百年後 癸丑歲에 三派子孫이 以知敦寧公派譜로 合謀鳩財하야 增封易茨하고 床石改設하고 望柱及碑碣을 新豎하고 知敦寧公의 位土도 增補하며 齋舍가 建新하야 以完未遑之役하니 幹其事者亡炳斗 憲教 昌圭 諸氏而 遇亦一羽也라 方入梓에 不可無弁卷일세 諸宗이 請余之識之故로 辭不獲하야 乃敢取牒而筆之하노니 噫라 顧今世途가 益艱하고 人文이 已衰하야 不知倫常하야 視同氣血 如路人者 多矣라 苟使有族者로 皆

知其水木이 有自하야 雖屬疎親盡이라 竭其孝先睦族의 道則將見忠孝
之材가 該門에 盈溢하야 大有用於世하리니 實不能無望於 是譜也라 猗
歟吾族이여 宜其勉哉어라

歲月甲寅至月下瀚 金堤公十一代孫 麟圭 謹識

半萬年歷史를 가진 東邦禮義之民族中에 唯我新羅聖政千年始祖王
孫의 諸朴中에서 密陽朴이 가장 繁衍하고 그中에서 糾正公派가 또 그中에
駱村公派中 知敦寧公派인 吾等後孫이 今日의 繁榮을 누리게 된것
을 자吳 慶幸하세여 기는 同時에 中祖知敦寧公의 蔭德에 無限한 感謝의
崇敬을 드리는 바이다

嗚呼痛哉라 公의 長子 退憂堂公의 被禍로 受難이 繼續되매 後孫들은 離散
을 하라보니 公에 對한 奉榮守護가 不充分하였음은 물론이며 數々萬後
孫들은 墓所마저 不知後孫이 많으며 近親間에도 相互不知함은 遺憾스러
은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然而

去癸丑十月 祭享時 齋舍에서 三派後孫七八名이 相議한 끝에 知敦寧公
派譜編修를 서둘러서 散在한 宗族을 團合하여 諸宗의 情을 보아 位土
外大寺洞墓所에 石物을 마련하여야 하겠다는 意見의 一致를 보아 其席上

에于先三派에서 各貳拾萬錢式 六拾萬錢을 積立하고 着手하자는 案이나와
積立과 同時에 世代에서 不可不 成就하여야겠다는 決意下에 本譜委員會
가 發足하게 된 것이다 發足한 지 滿一年에 譜冊의 完刊을 보게 되었고 石物
과 位土 購入이 無難이 成就하게 되었으니 實로 忠孝世家의 後孫으로서
傳統이 如實히 發揚된 것으로 자못 自負와 欣喜로 不禁하는 바이며 이로
三百年來의 宿願을 풀게 되었으니 吾宗全體의 慶事로 自祝하는 바이
다 따라서 本譜 常任委員一同이 一致 合心하여 數萬諸宗의 期待에 어긋
나지 않으려는 一貫한 誠意와 努力의 代價이었으며 僉宗諸賢의 聲援
에 感謝를 드리며 編에 부치고자

歲甲寅 至月下瀚

延安公十一代孫

呂圭 謹跋

惟我朴氏 根深羅初하고 世赫勲爵하여 東方巨族으로 中外에 名
聲을 闡明타가 退憂公이 遭難하사 門祚 乍索이라 自是로 流離四
方而 敬族이 難合하야 崇祖之誠과 睦族之情이 自然缺如되었음을
惶恐無地이며 痛歎不已하든바 何幸癸丑十月 祭享時 諸宗이 齋聲
共應하야 中祖知敦寧公派 修譜宗議를 誓于 墓庭하고 萬場一致 決
意下에 告于 内外러니 三派中이 爭先表誠하야 不過一年에 知敦

寧公父子婦清風金氏兩代增補位土하고 配位貞敬夫人昌原黃氏
墓碑際幕하니祖宗宿願이纔成於年間之內하고子孫糾合於一祖
之下하니吾宗之團結이於斯盛矣로다 吾宗異日之慶을信之無
疑로다 有始有終하고較其事而董其工者의各盡盛意로以完先
事하니豈非大幸歟아願千秋萬代를通한 文献되게하기期待하면
什修譜의大意를略述하여跋에代하노라

歲甲寅至月

挹白堂 十一代孫

鍾洙

謹跋

大体族譜라면 一般的으로 先祖의 功勳이나官爵을내세우고族閥
을자랑하기爲한道具로認識하고있음은亦是否認할수 없는
事實이나然而 我朴氏는東方巨族으로新羅始祖王後裔로十二
代祖知敦寧公은李氏朝鮮朝에八賢八大家의名門大家의曹孫으로
로不幸이도長子退憂公의否運으로家産은沒落하고宗族은東
南으로散落된後天運이循環하여哲宗丁巳에伸雪耳百餘年도록
公의墓所守護外奉亨은薄土幾百坪뿐으로몇々近郊子孫에依해
謹々闕亨은免하는程度에不過했고配位貞敬夫人昌原黃氏
墓庭에는短石만이놓여있을뿐 이러한實情은極히遺憾스러은

일이며子孫의道理에實로悚懼無比한바癸丑歲亨時諸宗으로
同意合謀하여位土增補와大寺洞貞敬夫人昌原黃氏墓碑와床
石을바려키爲하여譜事를發足한바僉宗諸賢께서滿場一致로呼應
하여주시여不過期年에增補位土하고墓碑際幕하니實로感慨無
量할다름이며今般役事に勞苦를가리지않고常任하여주시는役
員諸位께深甚한謝禮를하느바이다

歲甲寅至月

抱白堂公十代孫

幸圭

謹跋

國家에는國史가있어야그家의由來와現況을알수있고氏族에는
族譜가있어야其氏族의系統과後孫의實態를알수있음은旣
知事實이다惟我朴氏는根深羅麗하고世赫勲爵이라가吾先祖
退憂公遭難으로宗族이四方而散在故로高陽所在知敦寧公
位土가薄弱하야數年前부터退憂堂公派에公卅幸圭禮山鍾烈
延安公派에大寺洞性敦貞圭昌圭金堤公派에安東麟圭신을光
一諸賢이苦心끝에오늘의位土增補와配位貞敬夫人黃氏墓
所에床石改豎와墓碣建立에重點을두고墓祀時諸族으로同意
合謀하여知敦寧公派譜編修를發足하였던바先靈의默佑와僉宗

의呼應으로 但一個霜에所期의目的을達成하게된것은實로同慶
不已하는바이다 然而 當時他門中에서는 冠五百원 童三百원의票
準인데도不狗하고本委員會는 各地僉宗의經濟面을考慮하여冠
三百원 童二百으로決定하였던것이다 이로因하여本委員會는
運營面에서譜冊은 四卷壹帙로冊代金은現在 八斤원以下로引
下할수없는要因도되는것으로思料되는바 江湖僉宗의것은理
解가있기를바라는바이다 如期巨業이圓滿迅速히成就된것은
任員一同의堅勒한耐苦와 僉宗諸位의卓越한 崇祖誠力の結晶으
로思料하고상가深甚한感謝를드리면서所懷의一端을述하여
編末에부치노라

歲甲寅至月下瀚

挹白堂公九代孫

炳斗 謹跋

自古로 民族의歷史는潮流에따라흐르고人類의文化가世運의趨
移에따라日加發展하고있는途上에서 古來의東土之禮儀가西洋風
流에밀리고舉世가混濁하여生存競爭에急急한 나머지人倫之道에
立脚한報本之道가疎忽하고睦族之誼가日衰하여家法이解弛
하고宗規紊亂하니 無論某姓氏하고 崇祖睦族의良俗이難見이로

斗然而惟我朴氏糾正公後裔一知敦寧公諱安世繼々承々燦爛
한文化와赫々한文閥의矜持를保全維持해왔다不幸이도公
의長子退憂公의癸亥之禍로宗族이散在한故로公에對한封
塋守護가不充分하였음은吾等後孫되者로서惶恐無地며痛難
不已하느바이다

今般知敦寧公派譜編修에있어當初目的은知敦寧公位土增補
와配位貞敬夫人昌原黃氏墓碣을마련해야겠다하여累年間勞心
焦思하던中去癸丑墓祀時三派諸宗이合謀하여設譜廳于京
城九宜洞하고知敦寧公派譜編修를齊發한것이다以來初
期亡各門中에서亦是曰可曰否의兩論이對立되여오다가漸次本
譜編修의目的과大議를理解하고大小二百餘單子요一萬五
千餘名이積極呼應하게되여一個星霜에完刊을보게되였고
計劃하였던元堂에位土購入과大寺洞에墓碣建立이우리의所望
에洽足하지는못하나마年來의宿願을어느限成就하게된것이다
同時今般譜事에掌財麟圭氏는譜廳事務室을提拱하였고
炳斗氏는不顧家事하고諸般事に常任하였으며昌圭氏
幸圭氏鍾洙氏는許多한難関을克服하고有始有終의美

를 선우게 되는데 對하여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 바이며 任員
諸位들의 一貫한 舍心 勞力과 僉宗 諸賢의 熱烈한 聲援과 協助
에 深甚한 感謝를 드리며 是役의 顛末과 所感
을 略述하여 跋에 부치노라

歲甲寅至月下瀚

挹白堂公十一代孫

鍾烈

謹跋

朴氏新羅璿源世譜

一世

始祖王

姓朴氏諱赫居世

號居西于漢宣帝

地節元年壬子秋

七月聖母自仙桃

山降于楊山蘿井

誕降六部人收養

之五鳳元年甲子

夏四月即位于辰

韓之地國號徐羅

今慶州平帝元始

四年甲子春三月

薨在位六十二年

壽七十三

陵國都南七里曇

岩寺傍南亭數內

卯坐

王妃閼英氏之生

亦有龍瑞甘露元

年戊辰立為妃誕

三男一女

王薨之七日妃亦

薨

陵同原卯坐事在

史譜南海儒理婆

娑三王陵同在二

聖陵原四故謂五

陵蓋倣漢制五陵

始祖王甲子夏四

二世

嗣南海王

諱懸解或作海或

日次號次次雄或

云茲克 甘露四

年辛未誕降平帝

元始四年甲子即

位三年丙寅春正

月建始祖王廟四

時祭享更始二年

甲申秋九月薨在

位二十一年壽七

十四

陵同原卯坐

王妃金氏封雲帝

王后一云雲梯夫

人 誕二男二女

陵方山子坐

王妃昔氏封阿婁

王后一云阿夫人

太子儒理嗣位

三世

嗣儒理王

諱治理亦曰齒理

號尼師今玄帝更

始二年甲申即位

光武中元二年丁

巳冬十月薨在位

三十四年

陵光陵同原卯坐

王妃金氏明宣王

后葛文王日 如女

誕二男二女

陵東山子坐

王以遺命傳位昔

脫解章帝建初五

年庚辰脫解王薨

復傳王之次子婆

娑

四世

嗣逸聖王

光武建武二十年甲

辰誕降順帝陽嘉三

年甲戌繼祗摩王立

永興二年甲午春二

月薨在位二十一年

壽一百一十一

陵國都南七里蟹目

嶺下醬田洞卯坐

王妃昔氏誕一男

王妃金西門外子坐

王妃許氏正安王后

太子阿達羅王嗣位

五世

嗣阿達羅王

諱

桓帝永興二年甲

午即位靈帝中平

元年甲子春三月

薨在位三十一年

陵國都南十五里

拜日山卯坐

王妃昔氏誕一男

一女

陵金西門外子坐

六世

男碧芳

追封葛文王早卒

昔氏元年甲子靈

帝中平元年墓金

西門外子坐

配金氏墓同原子

坐

七世

子武英下

公昔奈解王

諱燁追尊照望

王子伐休王孫

坐

男伊非

一云伊黎追封葛

文王墓寶文山庚

坐

配奔韓國金氏大

阿食儒女

公昔良乙

大阿食

公金思義

左翊衛大將軍

參知政事

子阿道

追封葛文王壽

一百二十四

女金仇道

子味鄒王立追

封葛文王鷄林

始祖太輔公追

封開智六世孫